[New Look] 이목하

NEW LOOK PEOPLE 이목하

청춘의 페르소나, 떨림의 순간

2024 / 04 / 22

조재연

<자아 기능 오류 04> 면에 유채 162.4×130.7 2023

<자아 기능 오류 02> 면에 유채 180.2×144.4cm 2023

이목하는 희열과 좌절이 뒤엉킨 동시대 청춘의 초상을 그린다. 소셜 미디어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름도 상황도 모르는 사진에 담긴 서사와 감정을 포착해 화폭에 펼친다. 카메라를 당당하게 응시하거나 활짝 웃는 익명의 인물들. 행동만 보면 이들은 그저 행복해 보인다. 그러나 작가의 회화는 화면 너머에 도사린 젊음의 불안을 동시에 머금는다. 청년 세대에게 인스타그램은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일상이 곧 인스타그램인 것은 아니다. SNS에 포스팅된 행복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연출의 결과다. 이목하가 파고드는 것은 이러한 연출이 차마 감추지 못했던 내면의 틈이다. 디스플레이의 선명한 RGB는 겹겹이 쌓이는 유채를 통해 빛이 바래고, 조리개가 담지 못한 그늘 속 어둠은 붓 자국만이 횡행한 추상으로 남는다. 혼탁한 색감은 화면의 과장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인물의 솔직한 정서를 자아내는 장치다. 침침한 조명 아래, 살결과 주름은 밝은 빛에 있을 때보다 또렷해진다. 편집이 감추고자 했던 신체의 '흠집'은 평평한 프레임 밖 인물의 이면을 짚어낸다. 희열의 얼굴 그 사이사이 군티에 청춘의 비애가 드러난다. 한편 선분과 색 면으로 추상화된 어둠은

개인을 소외시키는 사회를 은유한다. 화면에서 그늘은 피사체를 삼키듯 다가온다. 궤적이 온전히 살아있는 브러시 스트로크는 인물의 들숨과 날숨의 흔적의 비유다. 호흡을 따라 청춘은 사회의 부조리를 들이쉬며 받아들이거나 내뱉으며 맞선다. 행복과 불안, 수용과 저항, 그 어느 곳에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 이목하는 젊음의 의미를 탐구한다. 여기에 작가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중성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청춘은 모순적이다. 그래서 아름답다. / 조재연 기자

이목하 / 1996년 서울 출생. 세종대 회화과 학사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예술전문사 과정. 제이슨함(2023), 갤러리아노브(2020) 등에서 개인전 개최. <능수능란한 관종>(부산현대미술관 2024), <인공 눈물>(뮤지엄헤드 2024), <카르마>(런던 No.9코크스트리트 2023), <0인칭의 자리>(디스위켄드룸 2021),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챕터투 2020) 등 단체전 참여. 아시아프프라이즈(2019) 수상. 2023년 아트바젤 홍콩 '디스커버리즈' 섹션에서 개인전 개최.